

<2014.09.16.>

## 새만금일보

2014년 09월 16일 (화)  
지역 13면

### 고창 대야초, 사부자 오베이골 습지 체험

고창 대야초등학교가 사부자 오베이골 습지 체험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체험활동에는 유치원생을 포함한 전교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총 80여명이 참여했다.

고인돌 박물관에서부터 운곡서원에 이르는 제1코스 고인돌길(총 3.4km)인 오베이골은 다섯 갈래로 길이 갈린다고 해서 오방골이라고도 불리며 습지가 생기기 이전에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30년 가까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오베이골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종의 분포로 천연 자연학습장으로서 아름다운 자연을 뽐내는 곳이다.

고인돌 박물관에서 시작된 걷기 체험은 소망의 종을 울리고 운곡 서원까지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습지길을 걸으며 학교생활, 일상, 교육관심사 등 저마다의 답소를 나누며 마무리 됐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90 X 75 mm

## 고창, 대아초등학교 습지체험 '눈길'

지난 9월 11일 아산면 대아초등학교(학교장 송준희)에서는 사부자 오베이골 습지 체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체험활동에는 유치원생을 포함한 전교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총 80여 명이 참여하였다.

고인돌 박물관에서부터 운곡서원에 이르는 제1코스 고인돌길(총 3.4km)인 오베이골은 다섯 갈래로 길이 갈린다고 해서 오방골이라고도 불리며 습지가 생기기 이전에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30년 가까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오베이골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종의 분포로 천연 자연학습장으로서 아름다운 자연을 뽐내는 곳이다.

고인돌 박물관에서 시작된 걷기 체험은 소망의 종을 울리고 운곡 서원까지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습지길을 걸으며 학교생활, 일상, 교육관심사 등 저마다의 답소를 나누며 마무리 되었다.

본교는 2012년부터 해마다 사부자 한마음 도란도란 걷기활동을 기획하여 서로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선운산 숲길걷기, 선운산 생태공원 및 운곡습지길 탐방 등 지역에 위치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대아 교육가족들의 힐링과 건강증진은 물론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아교육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조종욱 기자

98 X 114 mm